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행복의 관계

윤혜준¹⁾ · 백원영²⁾ · 최명원³⁾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 요인(성별, 학업성적, 건강, 친구관계, 진로성숙도), 가구 요인(학력, 가구소득, 부모의 정서적 지지), 학교 요인(학교소재지, 학교유형)과 관련한 변수들을 통제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행복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2차 웨이브의 1차년도 학생, 가구, 교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016년 기준 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중 연구 변수에 응답한 총 9,172명이다. 분석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 진로성숙도, 부모의 지지 및 친구 관계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행복은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 학교, 가구 특성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과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부모와 친구 간의 관계에서 원활한 소통과 지지를 경험할수록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보호자 학력이 높은 경우 개인의 행복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의 함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I. 서론

한국 사회에 물질주의(materialism)가 지배적이라는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Diener et al., 2010). 경제 발전은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Inglehart(1971)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적인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양해만·조영호(2018)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탈물질주의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소득 분배 및 불평등의 악화, 청년 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 불안정 요인들이 한국인의 물질주의적 가치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물질주의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물질적 재화 획득과 소유를 삶의 다른 측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된다(Richins & Dawson, 1992). Richins & Dawson(1992)은 물질주의를 소유중심(acquisition centrality), 성공판단(possession-defined success), 행복추구(acquisition as the pursuit of happiness)의 하위 요소로 개념화하였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

3)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는데 세 요소에 따라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메커니즘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에 따르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사람은 물질의 소유가 삶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삶의 만족 또는 불만족의 원천이 된다. 물질주의는 객관적인 재화로서의 ‘돈’의 양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드러내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이민아·송리라, 2014).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물질주의 성향을 갖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스페인의 현대 미술가인 하비에르 마틴(Javier Martin)⁴⁾은 “Blindness”라는 기획 전시에서 ‘돈’이 무늬로 된 옷을 입고 얼굴은 가린 모델을 통해 물질과 같은 피상적인 요소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비판하고 내재적 가치의 의미를 역설한 바 있다. 물질주의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과도 이처럼 물질적 욕망과 소유에 대한 집착은 사회적 관계, 개인의 내적 성장, 사회적 기여 등 삶의 또 다른 영역에 대한 경시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Karabati & Cemalcilar, 2010).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영상의 범람은 외형적 가치에의 집착과 소비주의의 폐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유튜버(Youtuber)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5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정은진, 2018). 과거와 달리 어려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며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세대에게 유튜버는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일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즉각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직업일 수 있다. 그러나 구독자 수 등에 따라 광고 수입이 주어지는 유튜버의 수익 구조와 단지 일상을 공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아동 유튜버가 존재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에까지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Hollingsworth & Lee, 2019). 김유나·설경옥·박선영(2017)은 아동 및 청소년기부터 미디어를 통해 물질주의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산되는 수많은 광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도록 우리를 호도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수준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는 실증적으로도 뒷받침 되었는데, 20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청소년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염유식·김경미·이승원, 2016). 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의 결과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고등학생의 약 29%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반문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로 인해 청소년기의 행복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포기해야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현실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범(2009, p. 367)은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나 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교육에 대해 기대하지 않음은 물론 상상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대

4) 출처: <https://www.artsy.net/unsupported-browser>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물질주의와 행복에 관한 선행 연구는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행복 간의 부정적 관계를 대체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물질주의가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논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의 학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아 온 주제인데,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물질주의가 개인의 낮은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 수준 뿐 아니라 우울, 불안, 행동 장애 등의 정신병리 증상, 과소비 행동, 인종차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Fitzmaurice & Comegys, 2006; Roets, Van Hiel, & Cornelis, 2006).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 행복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실제로 개인의 주관적인 안녕감이나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지에 대한 학문적 탐색과 논의는 거의 부재하다. 김유나·설경옥·박선영(2017)은 한국의 경쟁적인 입시 문화 자체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공지상주의나 물질주의 가치를 쉽게 수용하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여 돈, 성공, 명예와 같은 외적 가치를 내적 가치보다 우선시 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물질주의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과연 물질주의는 개인, 특히 경제적 독립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의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청소년기 행복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갖는다고 밝혀진 학업성적, 진로, 부모 또는 친구와의 관계, 가정 배경 관련 변수 등을 통제된 후에도 물질주의 가치관은 행복과 연관성을 가질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청소년 개인의 삶, 특히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등단계의 학교에서 대학 혹은 직업 세계로 이행하는 현대 사회의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물질주의와 행복 간 관계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물질주의에 대해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학문 분야 혹은 학자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Ahuvia & Wong, 2002). 물질주의를 이해하는데 가장 지배적인 관점은 물질주의를 물질적 소유(possessions)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개인적 가치로 정의하는 것이다(Richins & Dawson, 1992). 이에 따르면, 물질주의란 한 개인이 사회화과정을 통해 습득해온 것으로 쉽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다. 둘째, 물질주의를 소유욕(possessiveness), 질투(envy), 인색함(ungenerosity)이 결합된 성격 특질로 보는 관점도 있다(Belk, 1985). 이에 따르면, 특정 상황적 자극이 주어질 때 이러한 특질이 물질주의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 셋째, 물질주의적 행동을 금전적 보상, 사회적 인증 등의 보

상을 얻기 위해 외재적으로 동기 부여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Kasser & Ryan, 1996). 물질주의에 대해 상이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것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물질주의에 대한 기존의 문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결과 변수는 행복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일 것이다(Shrum et al., 2013). Dittmar, Bond, Hurst, & Kasser(2014)가 메타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물질적 목표 추구가 낮은 수준의 행복, 만족, 자기실현, 그리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감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역시, 소득 등의 물질적 소유와 행복 간의 관계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였다.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절대적 소득 보다는 특정 준거집단 혹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비교집단에서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행복을 예측하는 보다 유효한 예측변수이다(Brown, Gardner, Oswald, & Qian, 2008; Clark, Frijters, & Shields, 2008). 예를 들어, 영국에서 12,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7년에 걸쳐 수집된 종단 데이터를 분석한 Boyce, Brown, & Moore(2010)의 연구는 준거집단(예: 지역, 성별, 교육수준, 나이 등) 속에서의 소득의 순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득 수준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 다르게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질적 목표의 추구가 행복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만족을 얻고 동기부여될 수 있다(Deci & Ryan, 2000). 그런데, 물질주의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유능하며,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제약을 가한다. 그 결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추구할 때 우리는 낮은 수준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Kasser et al., 2014; Niemiec, Ryan, & Deci, 2009).

둘째, 우리는 물질적 부를 부각시키는 문화적 메시지(광고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가치, 특히 물질주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은 이러한 메시지에 따라 형성한 이상적 자아와 본인의 현 모습과의 괴리를 경험하며, 부정적 자기평가(negative self-appraisal)를 내리게 된다(Richins, 1991; Sirgy, 1998). 또한, 물질주의적 목적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상향 비교(upward comparison)를 통해 스스로의 물질적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소유물이 주는 효용은 점점 빨리 사라지고, 물질적 소유물의 획득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더 자주 필요로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Dunn, Gilbert, & Wilson, 2011). 물질적 영역에서의 낮은 만족도는 이는 삶의 다른 영역으로 전이(spillover)되어,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낮추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이들 집단에서 역시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Hofstede(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사회는 서구 사

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collectivism) 가치가 지배적이다. 물질주의는 쾌락, 성취, 권력, 자극 등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순응,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가치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Burroughs & Rindfleisch, 2002).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Workman & Lee(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물질주의 수준은 미국인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분석한 장덕진(2017)의 연구는 한국사회가 상대적으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함께 ‘탈물질주의적’ 경향이 거세지는 세계적 흐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한 예외 사례임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강한 수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주의적 가치가 이러한 물질적 목표의 추구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Burroughs & Rindfleisch, 2002), 한국적 맥락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Ⅱ』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진로, 부모, 친구관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KEEPⅡ는 중등·고등교육과 상관된 요인 및 성과를 파악하고 청년 취업이나 능력중심사회 구현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EEPⅡ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자유편입고, 특성화고 등으로 세분화된 학교 유형에 따라 학생 표본이 분포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나 친구관계 등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가족 구성원의 특성 및 학생과의 관계 등과 관련된 문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KEEPⅡ는 물질주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및 친구 관계, 진로성숙도 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KEEPⅡ 1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부모지지, 친구관계 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항을 이용하여 개인의 행복을 측정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감이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 개인의 행복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감정을 통해 정의된다고 제시한다(Easterlin, 197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고, 응답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0)”에서 “매우 행복하다(10)”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이란 인생의 우선순위로 돈을 상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Diener & Seligman, 2004). 분석에 활용된 문항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귀하에게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이며 여러 선택지 중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을 1순위나 2순위로 응답한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성숙도의 경우 연구마다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진로 성숙을 직업세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며, 진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er, 1969, Luzzo, 1993; 황매향·임은미,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계획 및 준비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였다.⁵⁾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개인 특성 및 가구 배경 등을 통제된 후 진로성숙도, 부모지지, 친구 관계, 그리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주관적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인 행복감의 경우 11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회귀계수는 OLS 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순서가 있는 범주형 종속변수일 경우에는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이 타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열척도나 등간척도로 간주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OLS 추정 시 추정치의 해석이 보다 용이하다.

독립 변수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성별, 주관적인 건강상태 등과 같은 개인특성변수, 학교 유형, 성적 등의 학교특성변수, 남녀 보호자 각각의 학력 수준과 가구 소득, 지역 등 가구특성 변수를 포함하였다. 진로성숙도와 부모지지, 친구관계의 경우 요인값으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8개의 진로 성숙 항목에 대한 기초통계와 상관관계가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8개 진로성숙도 항목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대학 및 학과 정보 탐색과 직업 정보 탐색, 졸업 이후 진로 계획 여부와 진로 준비 방법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다. 이들 진로성숙도 항목들 간의 Cronbach α 도 0.892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진로성숙도를 의미하는 문항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 학과의 정보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나는 희망(관심) 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혹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나는 나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내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의 8개 문항이고,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진로성숙도 요소들의 기초 통계와 상관관계

진로성숙의 하위 요소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대학 및 학과 정보 탐색	3.722 (0.898)	-							
(2) 직업 정보 탐색	3.826 (0.841)	0.757***	-						
(3) 학력 및 자격 정보	3.705 (0.892)	0.513***	0.540***	-					
(4) 진로 계획	3.434 (0.928)	0.478***	0.485***	0.561***	-				
(5) 졸업 후 진로 계획 여부	3.689 (1.006)	0.442***	0.446***	0.517***	0.605***	-			
(6) 진로 준비 방법	3.598 (0.951)	0.502***	0.499***	0.583***	0.602***	0.700***	-		
(7) 진로 선택 기준	3.855 (0.860)	0.436***	0.451***	0.445***	0.470***	0.503***	0.547***	-	
(8) 어려움 극복 가능성	3.475 (0.848)	0.362***	0.382***	0.356***	0.451***	0.413***	0.447***	0.445***	-

주. * $p < .05$, ** $p < .01$ *** $p < .001$; 양측검정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이들 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요인분석한 결과로 얻어진 요인값(factor score)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요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했다. 첫 번째 요인에 대한 아이겐 값(Eigen Value)이 4.505이고 두 번째 요인에 대한 아이겐 값이 0.862으로 1보다 작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은 56.3%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표 2>에는 첫 번째 요인에 대한 각 진로성숙도 요소들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정리되어 있다. 요인부하량이 대체로 0.7 전후를 보여서 진로성숙도 추정치들이 서로 안정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2〉 진로성숙도 요소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 부하량	Communality
(1) 대학 및 학과 정보 탐색	0.726	0.674
(2) 직업 정보 탐색	0.739	0.695
(3) 학력 및 자격 정보	0.707	0.512
(4) 진로 계획	0.735	0.560
(5) 졸업 이후 진로 계획 여부	0.742	0.618
(6) 진로 준비 방법	0.793	0.675
(7) 진로 선택 기준	0.651	0.453
(8) 어려움 극복 가능성	0.558	0.350
아이겐 값(분산설명력)	4.505(0.563)	

부모의 지지적 태도는 부모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Harold & Eccles, 1990). 기존에 부모 지지의 하위 요인으로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 지지의 5개로 구성하고 있는 연구도 있으나(이상희, 2009; 신호정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교 생활, 흥미와 적성, 미래 직업, 진학, 가치관의 측면에서 부모와의 대화 빈도를 부모 지지를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응답은 “전혀 하지 않음(1)”에서 “거의 매일(5)”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 관련 변수의 경우,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구 관계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한다(박영신 외, 2012). 친구 관계의 경우 내 생각에 대한 존중 및 고민과 문제 이야기에 대하여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고,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이다.

부모의 지지적 태도의 5개 항목과 친구 관계에 관한 2개 항목은 진로성숙도와 마찬가지로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요인값을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학교 유형, 건강상태, 성적, 보호자 학력, 가구소득, 지역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주관적인 행복감은 약 7.8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약 24.3%의 학생이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약 53%이고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은 약 34%이다. 주관적 건강평가는 5점으로 갈수록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이며, 응답자의 평균은 약 3.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초통계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행복감	10,517	7.845	1.956
설명변수	물질주의 가치관	10,515	0.243	0.429
	진로성숙도	10,513	0.055	2.133
	부모 지지	10,511	-0.069	1.819
	친구 관계	10,516	0.010	1.271
	성별 (남성=1)	10,517	0.529	0.499
	건강상태	10,517	3.828	0.934
	학교 유형 (직업계고=1)	10,517	0.343	0.475
	지역 (수도권=1)	10,517	0.433	0.495
	성적: 상 (23% 이하=1)	10,516	0.315	0.464
	성적: 중 (23% 초과~77% 이하=1)	10,516	0.537	0.499
	성적: 하 (77% 초과=1)	10,516	0.148	0.356
	남성보호자 학력 (전문대졸 이상=1)	9,946	0.503	0.500
	여성보호자 학력 (전문대졸 이상=1)	10,180	0.419	0.493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9,998	513.619	365.366

IV. 분석 결과

<표 4>에는 물질주의 가치관, 진로성숙도, 부모지지, 친구 관계 등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수들이 주관적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회귀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는 물질주의 가치관, 진로성숙도, 부모지지 및 친구 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관적인 행복감은 낮게 나타난다. 모형 2에서 개인특성, 학교특성, 가구배경특성 등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감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부모와 친구 간의 관계에서 원활한 소통과 지지를 경험할수록 행복에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해 통제된 다른 특성 변수들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행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성적의 경우 등급을 기준으로 하에 속하는 경우에 비해 상 등급인 학생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가구소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보호자 학력이 높은 경우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표 4>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물질주의 가치관	-0.335***	0.042	-0.350***	0.042
진로성숙도	0.134***	0.009	0.102***	0.009
부모 지지	0.190***	0.010	0.188***	0.010
친구 관계	0.205***	0.015	0.221***	0.015
성별(남학생=1)			0.624***	0.037
주관적 건강상태			0.572***	0.019
고등학교 유형(직업계고=1)			0.213***	0.040
거주지(수도권=1)			-0.146***	0.036
성적				
고교 학업성적: 상			0.191***	0.057
고교 학업성적: 중			0.095*	0.053
부모 학력				
남성 보호자 전문대졸 이상			-0.086**	0.042
여성 보호자 전문대졸 이상			-0.095**	0.042
가구소득(로그)			0.163***	0.035
상수항			4.401***	0.163
N	10,504		9,172	
Adjusted R ²	0.115		0.236	

주: 1)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함

2) *p<.10, **p<.05, ***p<.001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I』 1차년도 데이터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행복도를 높이는 개인 변인, 가정 배경 변인, 학교 변인의 영향력을 탐색하고 특히 개인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주목하여 행복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하여 주관적인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학교특성, 가구배경특성 등을 통제 한 후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감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부모와 친구 간의 관계에서 원활한 소통과 지지를 경험할수록 행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해 통제 한 다른 주요 변수들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이,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행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학교 유형 분류상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보호자 학력이 높은 경우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국 단위의 표본 패널 조사인 한국교육고용패널Ⅱ의 1차년도 조사 자료인 2016년도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 가구, 학교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요인 및 가정배경 요인 등 맥락적 요인을 모형에 투입한 후 물질주의 가치관과 행복 간 관계를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물질적 소유를 우선시하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발달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부적응과 심리적 어려움을 일으키기도 한다(박선영 외 2001).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물질주의 가치관과 행복에 대한 관계를 실증한 바 있지만(Richins & Dawson, 1992; Kashdan & Breen, 2007; 이민아·송리라, 2014) 중등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행복을 탐색한 연구는 드물었다.

한편 진로성숙도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시기에 자신이 미래에 선택할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방법 등을 아는 것이 주관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 생활이나 흥미와 적성, 삶의 가치관 등에 관하여 부모와 자주 대화할수록 주관적 행복감 또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지를 받을수록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친구관계 역시 행복과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친구란 부모나 성인과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감정적 유대관계와 상호지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에서 물질주의 가치관과 행복 변수는 동일 응답자가 동일한 응답 시점에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횡단면 자료를 활

용하였으므로 동일방법편의와 인과관계의 모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는 KEEP II 1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응답 시점을 달리한 종단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물질주의 가치관과 행복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된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물질주의 가치관을 측정함에 있어 이민아·송리라(2014)의 조작적 정의를 따라 인생에서 중요한 사항 중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돈'이 포함된 경우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민아·송리라(2014)이 연구의 한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후속 연구에서는 이분변수가 아닌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물질주의 가치관 변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물질주의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요소는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쓰인 행복을 측정하는 단일 문항이 다양한 연구와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사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사회적 관계, 개인의 건강, 삶의 의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행복의 측정에 한계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상의 한계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행복 간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결과 변수 간 긍정적, 부정적 관계를 밝혀 왔지만 심리적 메커니즘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소수이지만 Richins(2011) 등 일부 연구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두 변수 간의 매개 변수로서 검증되었을 뿐이다. 둘째, Richins(2004) 등 하위 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차원으로 구성된 물질주의 척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을 종단 데이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Richins·Dawson(1992)는 물질주의를 획득중심, 성공수단, 행복추구를 포함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개념화하였는데 세 요소에 따라 물질에 대한 소유 동기, 행동에 미치는 메커니즘은 다를 것이다. 셋째, 한국의 청소년, 청년, 성인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왜 더 높은 물질주의 경향을 보이는 지에 대해 탐색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소를 연구한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외(2011)는 물질주의는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문화 속성 중 하나로 보았으며 보수성과 물질주의가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증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물질주의 가치관이라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심층적 탐색과 함께 생애 단계에 따른 연령 집단 혹은 세대별로 가치관의 차이가 행복이라는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행복을 논의함에 있어 물질주의 가치관의 중요성이 의미있게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김유나·설경옥·박선영(2017).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3), 237-268.
- 박성연·이종미·임숙자(2001). 남, 녀 청소년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 식생활 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8), 1-18.
- 박영신·김의철·한기혜·박선영(2012).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학교,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신효정·김영빈·이상희·이상민(2010). 부모평정 진로지지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73-190.
- 염유식·김경미·이승원(2016).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민아·송리라. (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37(4), 89-114.
- 이기범(2009). 한국의 교육문화와 아동청소년의 행복. *한국청소년연구*, 20(1), 365-392.
- 이상희(2009). 진로상담: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 장덕진(2017).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가치관 변동: 김우창, 송복, 송호근의 양적 변주”. 김우창·송복·송호근·장덕진 지음, 『한국사회, 어디로?』, 경기도:아시아.
- 통계청·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 통계.
-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2011).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소.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1), 252-252.
- 황매향·임은미(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Ahuvia, A. C., & Wong, N. Y. (2002). Personality and values based materialism: Their relationship and origi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2(4), 389 - 402.
- Belk, R. W. (1984). Three scales to measure constructs related to materialism: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s to measures of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91 - 297.
- Belk, R. W. (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3), 265 - 280.
- Boyce, C. J., Brown, G. D., & Moore, S. C. (2010). Money and happiness: Rank of income, not income, affects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21(4), 471 - 475.
- Brown, G. D., Gardner, J., Oswald, A. J., & Qian, J. (2008). Does wage rank affect employees' well being?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47(3), 355 - 389.
- Burroughs, J.E. & Rindfleisch, A. (2002) Materialism and well-being: A conflicting values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3), 348 - 370.
- Clark, A. E., Frijters, P., & Shields, M.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 - 144.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 - 268.
- Diener, E., & Seligman, M. E.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1), 1 - 31.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
- Dunn, E. W., Gilbert, D. T., & Wilson, T. D. (2011). If money doesn't make you happy, then you probably aren't spending it right.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1(2), 115 - 125.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p. 89 - 125). Academic Press.
- Fitzmaurice, J., & Comegys, C. (2006). Materialism and social consumption.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4(4), 287 - 299.
- Harold, R. D., & Eccles, J. S. (1990). Maternal Expectations Advice and Provision of Opportunities. In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Adolescence*, Atlanta.
- Hofstede, G. (2010).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3rd ed.). New York: McGraw-hill.
- Hollingsworth, J., & Lee, J. S. (2019). "Boram, a 6-year-old South Korean YouTuber, buys \$8 million property"(2019.7.27.). <https://edition.cnn.com/2019/07/26/asia/boram-youtube-korea-intl-hnk/index.html>
- Inglehart, R.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 991 - 1017.
- Karabati, S., Cemalcilar, Z. (2010). Values, materialism, and well-being: A study with Turkis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 624 - 633.
- Kashdan, T. B., & Breen, W. E. (2007). Materialism and diminished well - being: Experiential avoidance as a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5), 521 - 539.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 - 287.
- Kasser, T., Rosenblum, K. L., Sameroff, A. J., Deci, E. L., Niemiec, C. P., Ryan, R. M., Árnadóttir, O, Bond, R., Dittmar, H., Dungan, N., & Hawks, S. (2014). Changes in materialism,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and an intervention experiment. *Motivation and Emotion*, 38(1), 1 - 22.
- Luzzo, D. A. (1993). Predicting the 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s: A comparison of personal,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271 - 275.
- Niemiec, C. P., Ryan, R. M., & Deci, E. L. (2009). The path taken: Consequences of attaining intrinsic and extrinsic aspirations in postcollege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3), 291 - 306.
- Richins, M. L. (1991). Social comparison and the idealised images of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1), 71 - 83.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 - 316.

- Roets, A., Van Hiel, A., & Cornelis, I. (2006). Does materialism predict racism? Materialism as a distinctive social attitude and a predictor of prejudi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0, 155 - 168.
- Schaefer, A. D., Hermans, C. M., & Parker, R. S. (2004). A cross cultural exploration of materialism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8(4), 399 - 411.
- Shrum, L. J., Wong, N., Arif, F., Chugani, S. K., Gunz, A., Lowrey, T. M., Nairn, A., Pandelaere, M., Ross, S. M., Ruvio, A., Scott, K., & Sundie, J. (2013). Reconceptualizing materialism as identity goal pursuits: Functions, proces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6(8), 1179 - 1185.
- Sirgy, M. J. (1998). Materialism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3(3), 227 - 260.
- Super, D. 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1), 2 - 9.
- Workman, J. E., & Lee, S. H. (2011). Materialism, fashion consumers and gender: A cross 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5(1), 50 - 57.

❖ Abstract ❖

Materialism and happiness in Korean adolescent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Yoon Hea Jun, Baek Wonyoung, Choi Myengweon

Although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happiness has been increasingly confirmed by many empirical studies, the topic of materialism, as an emerging value, is an important issue especially among adolescents in a Korean context. The current study is primarily concerned with exploring the relation of several individual and contextual difference factors to the materialism of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Data used in the analysis were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Results provided strong evidence toward negative associations between materialism and happiness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individual and contextual variables that would likely affect happiness in our sampl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materialism, happiness, career maturity, high school, KEEP